



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

상황 제시

中門(중문) 나서 大門(대문) 나가 地方(지방) 우회 치다라 안자 以手(이수)로 加額(가액)하고 오나가 가나가
올라 손으로 눈 위 이마에 대고
 건넌 山(산)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잇거날 저야 님이로다.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
검은 것과 흰 색이 뒤섞인 모양
 곰의늪의 늪의곰의 천방지방 지방천방 매른디 굴회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情(정)엿말 하려 하고
급히 달려가는 모습, 외태어 나열 가리지 않고 우당탕 소 리가 나도록
 겹눈을 흘깃 보니 上年(상년) 七月(칠월) 사흔날 갈가벽긴 주추리 삼대 살드리도 날 소겨다.
지난 해 껍질을 벗긴 삼 줄기 알뜰하게, 반어법
 모쳐라 밤일식 망정 행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하패라.
웃길 뻔 했구나

< 해 석 >

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

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 앉아 손을 이마 에대고 임이 오는가 하여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검고흰
 것이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엮치락뒤치락 천방지축 마른 곳, 진 곳 가리
 지 않고 힘차게 건너가서 속엿말 하려고 겹눈을 흘깃 보니 작년 칠월 3일에 껍질 벗긴 삼대가 나를 알뜰히도 날 속였구
 나
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들 웃길 뻔 했구나.

갈 래 : 사설시조

성 격 : 해학적, 과장적

주 제 :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

특 징 :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화자를 해학적으로 제시, 과장된 행동 묘사.

해 설

이 시조는 애타게 그리워하는 임을 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사설시조이다. 임이
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어 하는 행동들이 과장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재미를 드러내고 있다.
 종장에서는 임을 그리는 초조한 마음에서 허둥대던 작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 겸연쩍어하고 있다.

